나주 이전기관 근무인원 7887명…전국 혁신도시 중 최다

전국 4만4734명…나주 17.6% 차지 6년 전보다 1500명 증가
한전 본사 인원 460명 늘어난 2060명…16개 기관 중 가장 많아
농촌경제연구원·농어촌공사·한전KPS는 이전 초기보다 줄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공공기관·공기업들의 본사 인원은 7887명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

나주 혁신도시 이전인원은 조성 초기인 지난 2015년에 비해서 1500명 넘게 증가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와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 등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본사 근무)는 7887명으로, 6년 전인 2015년에 비해 25.3%(1593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주 혁신도시 이전인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인원 4만4734명의 17.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어 2015년 인원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강원(7052명)이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전북(5778명), 경남(4515명), 경북(4332명), 울산(3880명), 부산(3676명), 충북(3652명), 대구(3167명), 제주(795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나주 혁신도시 이전인원은 조성 초기인 지난 2015년 6294명에서 2016년 6379명, 2017년 6942명, 2018년 7533명, 2019년 7827명, 2020년 7961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현황 (단위:명·%)

도시별	2015년	2020년	올 6월	6년전 비교(증감·증감율)	
계	2만8444	4만4438	4만4734	1만6290	57.3
강원	1794	6998	7052	5258	293.1
충북	1601	3662	3652	2051	128.1
제주	402	746	795	393	97.8
전북	2934	5664	5778	2844	96.9
부산	2295	3605	3676	1381	60.2
울산	2687	3831	3880	1193	44.4
경남	3290	4288	4515	1225	37.2
광주·전남	6294	7961	7887	1593	25.3
대구	2800	3346	3167	367	13.1
경북	4347	4337	4332	-15	-0.3

〈자료:국토교통부〉

지난해 말(7961명)에 비해서 올해 인원은 74명(-0.9%) 감소했다.

지난해보다 이전인원이 줄어든 혁신도시는 대구(-179명), 충북(-10명), 경북(-5명) 등 4곳이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인원은 지난해 4만4438명에서 올해 4만4734명으로, 296명(0.7%) 늘었다.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옮긴 16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인원이 많이 늘어난 곳은 단연 한국전력이었다.

한전 본사 인원은 2015년 말 1603명에서 올해 9월 말 2060명으로, 457명(28.5%) 늘어났다.

증가율로 따지면 한국콘텐츠진흥원72.9%(170명→294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71.4%(42명→72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0.1%(87명→148명), 전력거래소 53.5%(286명→439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3.3%(120명→172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2.0%(169명→240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9.7%(333명→432명), 한국전력 28.5%, 한전KDN 23.1%(958명→1179명), 국립전파연구원 16.8%(125명→146명), 우정사업정보센터 0.5%(778명→782명) 등 순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원 인원은 2015년 234명에서 올해 182명으로 22.2%(-52명) 감소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1.6%(724명→640명), 한전KPS는 3.6%(499명→481명) 줄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올해 현장부서 인력을 충원하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본사 인원 50명 안팎이 파견되면서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크게 보이는 것 같다"며 "내년 초까지 진행되는 신입사원 채용은 전년(169명)보다 대폭 늘린 310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보여 본사 인원은 통계적으로 다시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에너지밸리' 수출기업 보증보험료 지원·수수료 우대

9일 한전 나주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밸리 수출활성화 업무협약식'에서 최명호(왼쪽 5번째) 한전 상생발전처장과 정민식(왼쪽 6번째) 하나은행 부행장 등이 협약서를 나누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한전·하나은행 업무협약

한국전력과 하나은행이 '에너지밸리' 기업들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9일 한전 나주 본사에서 '한전 에너지밸리기업 수출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명호 한전 상생발전처장과 정민식 하나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에너지밸리 수출기업들은 ▲보증기관의 보증보험료 지원 ▲수출채권매입 수수료 우대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 거래 맞춤 상담 등을 받게 된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원이라면 우대 조건이 확대된다.

이달 기준 에너지밸리 투자협약기업은 530개에 달한다.

한전과 하나은행은 앞서 수출보증브랜드인증기업(KTP) 수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ESG 금융 플랫폼 기반 탄소중립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시 저탄소 식생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동참

aT 주관… 68만 단체 참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광주시가 저탄소 식생활 확산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지난 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사는 이곳에서 4~7일 열린 '2021년 광주미래식품전'에 참가하며 광주·전남 농수산식품 기업들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탄소저감을 위해 우리지역의 저탄소·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남김 없이 먹자는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에는 광주시와 나주시 등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 등 총 68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직거래 농산물(로컬푸드) 등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협력하기로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DN, 품질경영대회 '명예의 전당' 헌정

11년 연속 경쟁력우수기업 선정

한전KDN이 11년 연속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되며 '제47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한전KDN은 한국표준협회가 개최한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다.

품질혁신 활동에 큰 공을 세워 국가경쟁력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와 우수기업을 표창하는 국가품질경영 시상식이다. 올해는 29개 기업이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한전KDN의 선정은 올해 11년째다. 친환경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력산업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인 'AICBM'(AI·빅데이터·사물인터넷·클라우드·모바일) 기술개발을 선도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UAE)지사를 개소했으며, 오는 23일에는 인도에서 개최될 국제품질분임조 대회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

IT 인재 공간 조성 한전KDN은 지난 8일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용진육아원에 IT 인재양성을 위한 공간 'KDN-IT움'을 조성했다. 이 공간에는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실습용 PC와 교육용 책걸상 등을 마련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 28개 공간이 조성됐다. 〈한전KDN 제공〉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
■ 건 물 : 411 ㎡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상담 010-3733-3933